

올해도 이과생 문과 침공... 문과생 국·영·수 '삼중고'

2023학년도 수능

문이과 유불리 구조 '재현'
국어 17번 이과생에게 유리
수학이 입시 당락 좌우할 듯
문과생 교차지원 등 전략짜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인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 시험장을 찾은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났지만 남은 고시 일정의 지원 전략이 중요해졌다. 특히 예상 밖 '불수능'으로 혼란을 주고 있는 영어 영역에서는 듣기 평가 음질 문제가 다수 제기됐다. 더불어 올해 국어 영역에서는 이과 강세가 예상돼 문과생들이 국·영·수 삼중고에 빠진 상황이다.

◆불규칙한 난도의 '영어 영역'... 듣기 평가 음질 이의까지 쏟아져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2023학년도 수능의 영어 영역이 9월 모평보다 대폭 어렵게 출제되면서 등급 수수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업컨 데 달친 격으로 영어 듣기 평가 음질에 이의가 쏟아지면서 혼란이 예상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 게시판'에는 20일 오후 1시 기준으로 235건의 이의가 접수됐다. 가장 이의가 많았던 과목은 영어 영역으로 143건이며, 그 중 듣기 평가 이의가 120건에 달한다.

이의신청 게시판에 살펴보면 특정 고등학교에 대한 언급이 많다. 학생들은 해당 고등학교의 사전 음질 체크 여부를 지적하며 항의하고 나섰다. 본인이 반수생이라고 언급한 한 수험생은 "반

수생이라 작년에 수능에도 응시했는데, 작년과는 음질의 차원이 달랐다"고 꼬집었으며, 다른 수험생도 "영어 듣기에서 틀렸다는 생각에 온 몸에 땀이 나고, 그 시험에서 멘탈은 말 그대로 무너졌다"고 공정한 심사를 요구했다.

영어 영역이 9월 모평과는 다르게 '불수능'이었던 작년만큼 어렵게 출제되면서 등급 확보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에 이번 이의제기는 더욱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평가원이 모든 이의를 이상 없음으로 판정해 수험생들의 소송이 있었고, 결국 생명과학II 20번 출제 오류를 인정한 뒤 전부 정답 처리한 바 있다.

입시 전문가들은 문과 학생의 경우 주요 전략과목인 영어에서 수능최저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고 평가했다. 영어

의 경우, 2등급 확보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종로학원은 서울권 소재 대학에서는 정시에서 영어 변별력이 지난해보다 높아질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국어도 이과 강세

결과적으로 문과생들에게는 삼중고가 닦였다. 올해도 문이과 유불리 구조가 반복됨은 물론, 국어에서도 이과 강세가 예고됐다. 국어 영역의 길러 문항이었던 17번은 단순 과학 지문이 아닌 사회과학 영역인 통계 분석의 '최소 제곱법' 내용이 결합돼 있어 그래프 분석이 요구됐다. 종로학원은 "지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이과생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2023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장인 박윤봉 충남대 교수는 "올해 수능에서 예년

출제 기조를 유지하되 선택과목 간 유불리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국어, 수학 같은 경우 선택과목을 어떤 과목을 택하느냐에 따라 유불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면서도 "사실 이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도 선택과목 간 유불리는 불가피하다는 것에 동의했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과목간 중요도에서 지난해 국어, 수학 비중보다 수학 비중이 대단히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문과생, 지원 전략에 더욱 꼼꼼해야
문과생들은 예기치 못했던 '불수능' 영어와 국어 영역의 이과 강세 등이 겹치면서 지원 전략이 더욱 중요해졌다.

입시 전문가들은 문과생들은 통합수능 첫해인 지난해 입시결과와 통합수능 직전인 2021학년도 대학별 정시 입시결과를 면밀하게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이사는 "인문계 학과인데 수학 점수가 그 전해보다 상승했거나 유지, 소폭 하락 정도에 그쳤다면 수학 점수가 높은 이과 학생들이 인문계 학과로 교차지원했을 가능성 높아졌다"며 "금년도 입시는 수학에 대한 비중이 대단히 높고, 이과 학생들의 선택지는 넓어질 수 있지만 문과 학생들은 정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차지원 등 여러 변수들을 면밀히 예상하고 지원전략을 짜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12월 9일 수능결과 발표 이후 탐구영역에 대한 변환표준점수 적용 방법도 예의주시해야 한다. 이과생이 인문계 학과로 교차지원 시 탐구 영역에서 패널티를 주는 대학이 발생할 수도 있고, 오히려 반대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염두해 뒀어야 하기 때문이다.

17일 입시 업체들이 발표한 1등급 기준 원점수를 종합하면 국어 영역의 '언어와 매체'는 91~93점, '화법과 작문'은 92~94점이다. 수학 영역은 '확률과 통계'는 89~91점, '미적분'은 85~87점, '기하'는 85~88점 수준이다.

EBS가 공개한 1등급 기준 원점수는 국어 영역에서 '화법과 작문'이 91점, '언어와 매체'는 88점이다. 수학 영역은 '확률과 통계'가 89점, '미적분'이 85점, 기하는 '86점'으로 분석됐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서울 학교, 닷새간 '재난대응 안전훈련'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종합훈련 재개
지진·화재 대피, 교통안전 캠페인 등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체험 위주 훈련을 통한 재난대응역량 강화 및 안전문화 조성을 목표로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의 일환으로 실시되며,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3년 만에 종합훈련이다.

훈련 첫째 날인 21일에는 종로구 지역 지진으로 분청 및 학교에 일부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시설 응급 복구, 학사운영 등 논의를 위한 지역사고 수습본부 운영 훈련을 진행한다. 또한 분청 과정급 이상을 대상으로 심폐소생

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교육도 실시된다.

바로 다음 날 이어지는 둘째 날 훈련에서는 서울고은초에서 서울시교육감, 서대문구청장, 서대문경찰서장, 학부모회장, 학교운영위원장, 녹색학부모회장 등이 참여하는 '안전한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현장 훈련으로 실시한다.

이외에도 각급학교에서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실험실습실 안전사고 대응훈련, 학교폭력(성폭력), 혐오, 차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학생 생명 관련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훈련, 방과후학교·돌봄교실 화재대피 훈련 등의 토론 및 현장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올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체험 위주 실제 훈련의 효과성을 증대하기 위해 분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관내 모든 학교가 참여함으로써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난 상황에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데 중점을 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올해는 100년 만의 수도권 집중호우, 기후변화에 따른 강력한 태풍, 10. 29. 참사 등 재난 및 안전사고가 유난히 많았던 해인 것 같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다양한 재난 유형별 표준행동 절차를 구성된 각자 체득하고, 서울교육가족의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세종대 융합예술대학원 1회 피아노 페다고지 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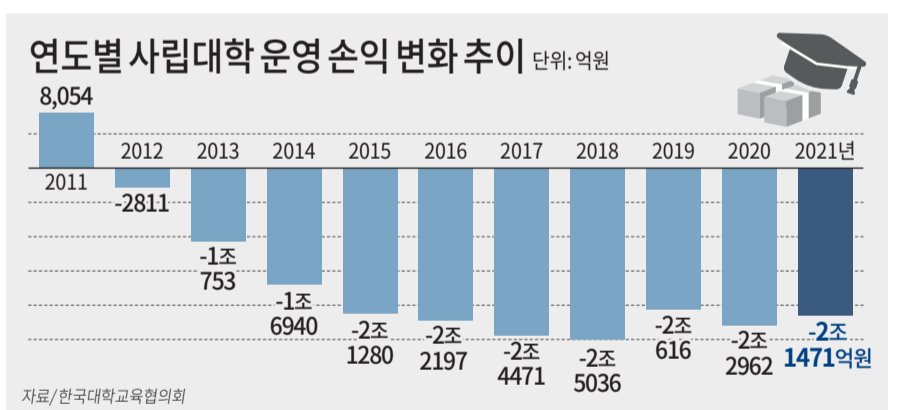
어린이 교육 기술 학술정보 등 공유

세종대학교 융합예술대학원 음악학과는 지난달 29일 '2022년 제1회 세종대학교 융합예술대학원 피아노 페다고지 학술 세미나'를 학생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페다고지 세미나'는 어린이를 가르치는 기술에 대해 학술 정보를 나누는 자리다. 이번 행사에는 피아노 교수학습법에 관심이 많은 현직 교사 및 융합예술대학원 음악학과 학생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황문희 교수의 융합예술대학원 음악학과의 석사학위 및 연주 디플

로마 과정 소개로 시작했다. 이어서 진행된 '피아노 콩쿠르 대상 입상을 위한 숨은 1cm 찾기' 특강에서 박태희 교수는 피아노 교육자들이 학습자의 재능과 소질을 어떻게 이끌어 개발할지에 대해 설명했다. 박 교수는 오랜 기간 노하우를 바탕으로 콩쿠르의 다양한 레퍼토리의 소개, 실전 연주 실습을 구체적으로 지도하는 법, 무대공포증이 심한 학생의 교육법 등을 전했다. /신하은 기자



사립대, 10년째 '적자 늪'... 작년 2조 손실

사립대학교 재정 운영현황 분석

전체 사립대학이 약 10년간 적자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우리나라 사립대학교 재정 운영 현황' 분석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전체 운영손익이 2011년 이후 지속적인 적자를 보이며 그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실질 운영수익은 2021년 14.5조원으로 2011년 14.6조원 대비 710억원(0.5%) 감소했지만, 운영비용은 2011년 13.8조원에서 2021년 16.7조원으로 2.9조원(20.9%) 증가했다. 또한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등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경상성 경비 비율이 2021년 실질 운영수익 총액의 75.9%이다.

결과적으로 운영손익은 2011년 8054

억원 운영수지 흑자 이후 최근 10년간 꾸준한 운영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2021년에는 2.1조원 운영수지 적자를 나타내기도 했다.

또한, 대교협은 사립대학교 1개교당 평균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이 2011년 563억원에서 2021년 520억원으로 43억원(7.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비자물가인상률을 반영하면 119억원(19%)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교육을 위한' 재정 투자 역시 2011년 1.8조원에서 2021년 1.4조원으로 3462억원(19.6%) 감소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지속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만성적 운영수지 적자를 해소하고, 대학의 '교육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규모의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하은 기자